

(가)의 내용을 근거로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의 시간 특성을 설명하고, (가) 지문의 밑줄 친 ㉠과 ㉡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000자, 100점)

(가) 에펠탑에 의해 표현된 시간이 찰나요 규칙적인 째깍거림, 천편일률적인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면,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287쪽이나 이어지고 또 때로는 몇 년이 속삭임 한 번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이렇게 시간은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공적이고 획일화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프루스트에게서처럼 더할 수 없이 사적이고 독특하고 그 영혼만의 시간으로 국한되었다.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는 신은 크로노스였다. 또 다른 시간의 신, 훨씬 다채롭고 파악하기 힘든 카이로스가 있었다. 권력은 크로노스에 매우 우호적이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동시성을 추구한다. 파시스트 국가들의 거대한 규모의 일사불란한 체조에서부터 하일 히틀러 경례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 동시성을 찬양해마지 않는다. ㉠ 동시성은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욕구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갖가지 고유의 시간들을 단일한 세계시간으로 희석시켜 버리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타이밍의 신, 기회의 신이요 행과 불행, 길조와 흉조 같은 시간의 서로 다른 측면들의 신이었다.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는 대양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 같은, 사상과 음악의 이미지와 순간적인 예술적 영감의 들고남이 있다. ㉡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계 시간의 헤게모니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은 당연하다.

(나) 시간은 여러 가지 기본 물리량 중 하나이다. 시간은 길이, 전류와 같은 다른 물리량에 대한 측정 표준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1초는 태양일(하루)의 $1/24 \times 60 \times 60$ 로 정하였으며, 이것을 태양시라고 한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력이 자연적으로 변하므로 하루를 기준으로 1초를 정하면 그 실제 길이가 자꾸 변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6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초를 서기 1900년도 1년 길이의 $1/31,556,925,9747$ 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을 역표시(曆表時)라고 한다. 그 후 천체나 지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시간 표준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된 원자시계가 개발되었다. 1967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초를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빛이 9,192,63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을 원자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는 원자시계를 개발하여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너를 만난 날은
날개 달린 날이다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그날은
초현실의 날이다 훅훅
새가 날아오던 날
너를 만난 날은
만신창이가 되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문득 가을이 오던 날
너를 만난 날은
필연의 날이다
머리에서 손이 빠져 나오고
다리에서 얼굴이 튀어나오던
허리에서 설탕이 쏟아지던
불안 비참 치욕 따위가
지루하고 맥이 없던 날들이
모조리 일어나 빛이 되던
아아 내 어깨 죽지에
문득 날개가 돋던 날
너를 만난 날